

Inside SUNBO 회사 소식

안전·보건·환경의 준수와 실천,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 안전순찰 활동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우리 회사는 지난달 1일 창립기념일을 기해 제3의 창업을 선언, 조선경기 불황을 타

체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했다. 이를 위해 3대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했다.

‘선보 3대 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①첫째, 안전?보건?환경의 준수와 실천 ②둘째, 오작Zero화 ③셋째, 보급률 100%달성이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째 목표인 안전·보건·환경의 준수와 실천을 위해 우리 회사는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안전표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공장별 안전 순찰(주1회) 강화와, 안전교육(공장별 주1회) 등을 통해 꾸준히 그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월 2회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는 등 수치의 객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사고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주의가 일시적이고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안전환경팀 김종신 대리과 전만석 사원은 “형식에서 탈피한 자발적인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해 최대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의에 의한 관리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해 경각심을 갖는 것인 만큼 적극적이고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연, 스트레칭, 절주, 개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순찰 및 교육, 점검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안전·보건·환경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에 있다. 창립 기념사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강령에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속담을 인용해 무엇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준수를 역설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1인 동호회 갖기 운동 및 소규모 동호회 신설 ...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과 참여 독려

우리 회사는 “집 보다 편한 회사”라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취미생활 지원 및 건강 강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그리고 그동안 동호회 활동 및 참여로 인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1인 동호회 갖기 운동 및 소규모 동호회 신설을 독려하고 있다.

1인 동호회 및 소규모 동호회는 단합된 모습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1인 동호회 및 소규모 동호회 중에서도 일정 활동기간을 충족시키면서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

서 전문적인 지지가 있을 예정이므로, 많은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는 바이다.

* 자신의 취미생활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거나 새로운 동호회 창설을 원한다면 동호회 창설(장단)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인사 재무부에 제출하지만 하면 자신만의 동호회를 만들 수 있다.

※ 한편,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동호회 게시판이 따로 있어 동호회 간 활동내용이나 동호회 소속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선보기족 동호회란을 클릭하면 각종 동호회별 게시판이 바로 링크된다. 그룹웨어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통해 글 작성이 가능해 동호회 소식이나 각종 의견들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당신의 즐거운 여름을 보내주세요 -8월 말까지 여름 사진 공모

이번달 말까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올 여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선보기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여름 사진이면 어떤 사진이든 가능하며 당선작은 9월 초 사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은상2명, 동상5명을 선정해 각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당선작들은 사내식당에 게시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① 0/132.168.0.58/p_그

림 사진기 공모전(2011년)에 개인 이름 폴더 생성 후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sbb@sunboind.co.kr로 이메일 송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출력된 사진일경 우안정민 과장(내선 538)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 사진 동호회 게시판에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안전

민과장(내선 538)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보 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여름 즐거운 추억을 선보 가족 모두와 함께



Life 추천여행지

속까지 시원해지는 장유대청계곡 즐기기

열마남지 않은 여름
블버는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연인, 가족과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가 있다면
여기 장유대청계곡을 방문해보길 추천해본다.



장유대청계곡은 불모산 산자락에 양갈래로 형성된 6km의 긴계곡으로 산림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폭포를 이루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장유암이 있으며 경내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탑을 건립했다고 전하는 장유회상의 사리탑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바다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깨끗한 물을 자랑하며 물이 어둠 가늘어까지지만 오기 때문에 안전해 아이들과 즐기기에 딱딱하 않아 좋다.

가까이 있어 더욱 매력적인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한 장

유대청계곡의 가는 길을 살펴보자. 장유IC에서 장유주공2단지 쪽으로 골장 진입하면 맞은편 산길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길을 따라 쪽 들어가면 가는 길에 벗진 장유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꼭대기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유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시원한 비림과 그늘이 장유대청계곡을 찾은 이들을 맞이한다. 숲이 우거져 있어 자연 그대로를 느끼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취사나 야영이 금지되어 있어 간단한 도시락을 싸들고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 딱이다.

멀리 휴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아직 피서를 떠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가깝고 만족 100%를 느낄 수 있는 장유대청계곡에 잠시 둘러 시원한 여름도 느끼고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다. 초가을까지도 물은 도가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주말 참을 내 물놀이 즐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장유대청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은 식도락 여행을 떠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필수코스라고 하니 물놀이 즐기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양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Life 특영대비

폭염 대비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필요

삼복 더위가 지나도 좀처럼 여름 무더위가 풀려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 같이 연일 기온이 올라갈 때면 작업장의 안전환경도 더 중요해진다.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산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폭염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우리 회사의 경우 올집과 같은 열처리 작업 등으로 인해 더욱 작업장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예를 살펴보면 불쾌지수 증가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과 같은 피해를 들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허탈증(열피로), 열발진(땀띠) 등 심혈관계, 신장, 위장, 신경계 전반에 장애를 끼치며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발생한다.

때문에 노동부와 기상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

장에 대한 행동요령 지침을 내려 안전에 신경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음은 폭염 경보에 따른 사업장 행동요령 10계명이다.

폭염 경보시 사업장 행동요령 10계명

-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
-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
-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검토
- ▷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

▷ 실의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증지를 신중 검토

-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이대근무 등 영안 마련
-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의 작업들 중지
-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갑작스러우므로 전기취급을 삼가
- ▷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 금지
-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허탈증(열피로)



열발진(땀띠)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성산업사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대성산업사는 1994년 출발해 프랜지(Plange), 팩킹(Packing), 가스켓(Gasket)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94년 창립 이래 17년 동안 우리회사와 연을 이어왔다.

우리 회사와는 주로 가스켓을 거래해 오고 있으며, 작지만 곁동 되었을 경우 전 라인에 스텝되는 만큼 중요한 것이 가스켓인 만큼 대성산업사는 우리회사가 긴급을 요청 시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가스켓은 소량다량종 생상품이라 종류가 워낙 많고 사이즈도 제각각이라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여직원들이 책임지고 해내

고 있지만 인력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 내에 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작업을 하는 등 신뢰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고.

대성산업사는 현재 매출의 20%정도를 선보와 거래하고 있다. 17년 동안 거래하다 보니 이제는 선보가 가족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한다.

사무실 곳곳을 살펴보니 직원들의 동반 여행 사진 등이 걸려 있었다. 이에 사진에 대해 질문을 던지니 선보의 가족친화경영을 받았고자 매년 국내 및 해외여행, 동반 등을 통해 직원 간 의사소통을 한다고 답했다. 이 덕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이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본 10년은 근무한다고 하니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다면 대성산업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하듯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이다. 내년 공장이전을 통해 사업을 집중화시키고 보다 많은 품목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 또한 직원 수는 얼마 안되지만 오래 함께 일해 온 만큼 앞으로 계속 회로예



를 함께 나누며 밀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 선보와의 관계가 더 유대적으로 발전하고 거래도 더욱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서로 사업적 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Run SUNBO Run **상상 현장의 소리**



선보하이텍 **김충명** 팀장

생생 현장의 소리는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와 작업환경에서의 모습, 개인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근무하자

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보기적들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는 선보하이텍 자재지원반 김충명 팀장이 선정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경력, 입사연도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일, 임무상 등등)

2008년 10월에 입사하여 자재지원반 소속으로 영암공장에 입고되는 모든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평소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할 때 만족이나 중요시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평소 신념이라면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근무하자입니다. 업무에 지쳐 몸은 힘들지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일할 때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주임무가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가장 힘이 듭니다.

Q 반대로 가장 보람차거나 뿌듯한 순간은 어느 때 인가요?

현장에서 요청한 자재를 바로바로 입고하여 완성품으로 납품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평소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취미는 없고 차에 관심이 많아 풀뚝히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Q 고매운 동료라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떤 점이 고매운 지도 말씀해주세요**

같이 자재지원반에서 근무하는 김효희씨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줌으로써 근무하는데 있어 가장 고매운 동료입니다.

Q 앞으로의 개인적/직장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 결혼을 해야하는데 아직 짝을 못만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 회사생활에 좀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ex. 직장동료들에게, 선보에 바라는 점 등등) 요즘 여러 문제로 인해 모두 인상적이라고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구경공장 **김태형** 사원

Q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지난 번 한동근 반장님의 기사를 읽었을 때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쑥스러웠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찌보면 뻔하고 당연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이다. 그것은 모두들 잘 아는 사실이다. 김태형 사원과 인터뷰를 마친 기자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그가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직업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반증하고 있었다. 원시 무뎠지만 다부지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이번 호 칭찬 릴레이 주인공 김태형 사원을 만나 보았다.

Q 언제부터 선보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구경공장에서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09년에 입사했으니 선보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Q 일할 때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든지 어중간 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힘들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성된 제품이 납품될 때면 모든 선보인이 그라하겠지만 저 역시 뿌듯함을 느낍니다.

Q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회를 통해 마음을 전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사원에게 고매운 이는 누구인가요?

한동근 반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친절

하게 저를 보살펴주시고 일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께도 감사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용접일을 함께 있어 앞으로 점점 숙련된 기술을 쌓도록 노력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써 최선을 다하는 선보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동료들 모두 몸안다치고 즐겁게 할상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다음 주자로 칭찬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우정 조장님을 추천 합니다. 늘 성실하고 열정이 묵묵히 자기일을 하시는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8월 생일자 명단
8월 10일(수) 12:10 생일파티합니다.
장소 : 옥상교육장

★생일표기 즐겨생일이신 분들은 일찍 나와 찾아서 케시팅을 알립니다.

- 1공방** 이기환(음7/22)
김동관(음7/11)
배희진(음7/21)
이영근(음8/13)
권성현(음8/21)
- 2공방** 정호경(음7/15)
이희중(음7/15)
정지훈(음8/13)
김계현(음8/20)
박찬수(음8/27)

순해공방 김희규(음7/10)

강재원(음8/9)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